



그림 · 박구원

하나 하나 실천 새 당간지주 세우자

현대불교 99년 연중캠페인 '한국불교 이것부터 고칩시다' 50제

한 종교학자는 "미래 한국사회의 문화적이고 정신적인 통합은 깊고 넓은 세계관을 지닌 종교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진단했다. 종교학자의 진단이 아니어도 '한국불교, 이대로는 안된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이대로 해서는 불교가 한국사회의 주변부에 머물 뿐이라는 지적이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으로 공론화되지는 못했다. 현대불교신문은 99년 연중기획으로 '한국불교 이것부터 고칩시다'에 나서기로 하고, 사부대중 50명에게 구급 12일부터 23일까지 주제 선정을 의뢰해 50개 주제를 확정했다. 본지는 '이것부터' 주제를 매호마다 실어 한국 불교를 새롭게 하기 위한 지상캠페인을 전개한다. 불교의 당간지주를 새로 세우는 작업이기도 하다.

- ▲사찰재산 비공개 사찰분규 및 도박 축재의 첫째 원인은 돈. 재정공개 제도를 해 원인을 근절해야 한다. 조계종에서 사찰운영위원회를 구성토록 했으나 시행하는 사찰은 몇 곳 되지 않는다.
- ▲무너진 원로 권위 불교공동체의 유지는 부처님법과 원로들의 존재로 가능했다. 그러나 요즘엔 어른 스님이 계시는지조차 모르겠다는 한탄이 나온다.
- ▲4부중 위주의 종단운영 종단은 4부중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비구 중심의 운영이다. 경쟁력있는 불교가 되기 위해선 각계의 역할을 모아야 한다.
- ▲사문화된 중현종법 중현종법을 사문화함으로써 법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급기야는 혼란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 지키지 못할 법은 아예 폐기하거나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
- ▲비구니의 역할 승려 숫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다. 그럼에도 종단 운영이나 정책 결정에 비구니 스님은 소외되고 있다.
- ▲문중의 파벌 조정 모두 일괄제지이며 도반이다. 그런데 어느 문중이 종단의 주도권을 잡는지 하는 말들이 오간다.
- ▲승려대회 날말 종권싸움에 승려대회가 도구화되고 있다. 승려대회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 ▲총무원의 역할 언제부터인가 총무원은 권력기구로 변질됐다. 불교를 대표하는 기구임에 틀림없지만, 통제기관은 아니다. 성격과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 ▲선거제도 도입자를 뽑는 일로 분규를 겪었다. 불교 교유의 전통에 바탕한 선거 제도의 확립이 시급하다.
- ▲종단간 불협화음 언제까지 집안 싸움으로 정재와 시간을 허비할 것인가. 대승적인 차원의 해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사찰마다 다른 의식 불교의식은 불교의 외적 표현이다. 가장 많이 복돋는 반야심경이 얼마나 음률이 다르나. 범종단적인 의식의 통일이 시급하다.
- ▲스님 대형승용차 이용 승용차는 소임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다. 그런데 세인들의 구성수급이 되었다.
- ▲스님 노후복지 중생의 귀의처가 되었던 스님들의 노후가 쓸쓸하다. 스님들의 축재의 한 원인으로 노후복지가 미비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 ▲승려교육 인권의 사표를 배출하는 승려교육이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 자체가 부끄러움이다. 감로법문은 교육과 수행에서 나온다.
- ▲승려 권위주의 승려와 신도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다. 존경과 귀의처가 되기 위해, 신도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을 때 존귀하다.
- ▲역할에 맞는 소양교육 전문화시대다. 전문적인 소양이 없는 감동을 창출할 수 없다. 자리에 사람만 앉혀서는 안된다.
- ▲무분별한 승려 의제 요즘엔 하늘색 승복까지 등장했다. 불교 정신과 품위를 드러내는 의제의 통일이 시급하다.
- ▲관광지화된 도량 유명 관광지에 인접한 사찰은 행락객이면 몸살을 앓는다. 사

- 찰은 스님들의 수행처이다.
- ▲스님의 도박 음주 흡연 일부 승려에 한정된 것이긴 하지만 음주 흡연은 다반사인 것처럼 여기는 풍토. 여기에 도박까지 가세해 한국불교를 찍히고 있다.
- ▲무너진 계율 계율이 존재하는가. 세상이 사라졌다. 말법시대일수록 계율은 더욱 중시되어야 한다.
- ▲실종된 지자와 포살 보름과 그믐, 한 달에 두 차례 허물을 밝히고 참회하는 의식이었는데, 요즘은 자자와 포살이 된지조차 모르게 돼버렸다.
- ▲토론회 '뒷방공사'는 토론 부재의 불교계 현실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말이다. 한 집단의 건강성은 비판과 토론의 활성화에 있다.
- ▲고액의 법문비 어른 스님의 감로법문을 신도들에게 들려주고 싶어도 법문비 부담 때문에 망설이는 사찰도 있다. 어른 스님들이 의무적으로 재정형편이 어려운 사

사부대중 50명 주제 선정에 참여 주1회 집중 조명 지상캠페인 전개

- 찰을 찾아 법문해주자는 제안도 있다.
- ▲호텔 행사 어지간한 행사는 호텔에서 치른다. 장소가 없기 때문이지만 사찰만큼 훌륭한 장소가 또 어디 있는가.
- ▲고층없는 건축물사 선조들은 집 짓는다고 해서 산과 들의 모양새를 흐트리지 않았다. 기둥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지혜는 옛사람을 뛰어넘지 못한다.
- ▲정치 권력에 밀착 왕에게도 잘하지 않는 기상을 불교는 지어 왔다. 정치권력에 의존하는 일은 불교의 존엄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다.
- ▲관광사찰 포교 사찰은 그 자체로 훌륭한 포교자료이며, 불교적 세계관을 함축한 곳이다. 관광수입의 1%만 투자해도 수십 배의 포교 효과를 낼 수 있다.
- ▲중허한 '사찰 1부대' 포교라는 목적

- 이전에 군장병들에게 불법을 전하는 일은 사찰과 불자들의 당연한 몫이다.
- ▲농어촌포교 부재 1천년 이상 우리 민족의 삶과 문화의 중심이었던 농어촌이 산업화에 의해 소외지역으로 전락했다. 이들 지역에 불교의 관심은 극히 저조했다. 적극적인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
- ▲외면받는 어린이·청소년 전국 1만여 사찰 가운데 어린이법회가 시행되는 곳은 3백여곳에 불과하다. 중고등학생 법회는 더 저조하다. 미래불교가 불안하다.
- ▲잃어버린 무소유 정신 현대사회에서 무소유는 어렵더라도 정신만은 소중하다. 물질의 집착으로부터 떠나고, 베풀고 나누는 행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근거이다.
- ▲전문가 양성 무대책 전문가 불교의 무형의 자산이다. 10년 이상 불어있기 힘든 곳이 불교집안이라는 후원을 언제까지 둘 것인가.
- ▲사회복지 교육수준의 그늘엔 늘 소외 받는 사람들의 아픔이 있다. 자비문중의 문패에 걸맞는 복지서비스의 제공은 불교의 의무이다.
- ▲책물 무대책 책물사건이 터지면 규탄

- 으면 자연히 복전은 넓어진다.
- ▲생활과 교리의 괴리 '부처님은 이럴 때 어찌 하실까' 하는 물음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한다. 새로운 사회적 현상에 대한 권위있는 불교적 해석이 절실하다.
- ▲재가자 법계 종단 및 사찰운영의 한 축이 되기 위해선 재가자의 법계 제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 ▲체계화 안된 신도교육 사찰마다 교양 대학 설립법이 있었지만, 전체 사찰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신도교육은 여전히 사찰 대소사에서 끝자리이다.
- ▲일주만 인 처량진입 옛 사찰엔 일주문 밖에 하마비를 세웠다. 부처님이 계신 도량이기 때문이다. 도량을 불자들 스스로가 장엄해야 한다.
- ▲부실한 신도관리 축원카드 관리가 고작이다. 신도들의 조직화, 역할 부여 등은 아직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 ▲제약할 못하는 신도회 신도회의 상황 점검과 새로운 방향 설정이 필요한 시기이다.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의 신도법 개정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기정불교 가정은 가장 기본적인 도량이다. 가족 불자화, 가정의 도량화로부터 부처님 세상이 열린다.
- ▲불서 입입은 풍토 한 조사에 따르면, 불자들의 1년 불서 독서량이 겨우 1권에 머물렀다. 불서 읽기도 수행의 한 방편이다.
- ▲인색한 문화·예술 지원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석학들은 이구동성으로 강조한다. 불교는 우리 민족문화의 뿌리이며 보고이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인류의 정신을 불교에서 찾고 있다.
- ▲사찰문화재 관리 도난. 훼손으로부터 성보지킴은 물론 성보에 깃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펼쳐야 한다.
- ▲방치된 폐사지 폐사지는 선인들의 수행처였다. 문화유산의 깃든 곳이다. 방치된 폐사지에 꽃밭이라도 세워야 한다.
- ▲언론 모니터 방송과 신문에 의한 불교의 왜곡·편파가 심심찮다. 불자들의 감시와 시정요구만이 바로잡는 길이다.
- 정리·정순·김원우 기자 (swjung@buddhopia.com)

주제 선정에 참여해주신 분들

- 월운스님 동국여경원장
- 현성스님 청소년교화연합회장
- 보광스님 동국대백주년기념사업 본부장
- 성운스님 인덕원 원장
- 각현스님 연꽃마을 이사장
- 성우스님 조계종 계단위원
- 일화스님 조계종총무원 사회부장
- 호명스님 태고종총무원 사회부장
- 지현정사 진각복지회 사무국장
- 지광스님 익산사업연합회 회장
- 도성스님 영등포사업연합회 회장
- 종림스님 고려대장경연구소 소장
- 성일스님 청교원 인천지부장
- 수임스님 제주불교총연합회장
- 돈관스님 한국불교사회연구원장
- 해우스님 순천 선암사 재무국장
- 지광스님 삼선포교원장
- 해원스님 한마음선원 주지
- 해우스님 동국대 교수
- 상덕스님 옥수종합복지관장
- 법장스님 무진법장사 주지
- 법현스님 불교레크리에이션포교회장
- 순현스님 전국불교선학인연합회장
- 신덕스님 한국불교연륜인회장
- 공중스님 전조선일보 논설위원
- 선진규 불화산수련원장
- 정병호 한국불교연구원 이사장
- 정중스님 동국대 교수
- 강철기 불교텔레비전 경영국장
- 홍사성 불교시대사 주간
- 한승원 소설가
- 박광서 우리는신우 대표
- 장현태 변호사
- 김한근 조계종중앙신도회장 직무대행
- 리선행 두타도량 원장
- 김형우 서울시 문화재감정관
- 이재열 유마선원장
- 정부기 중앙대 교수
- 최용호 대한불교진흥원 사업부장
- 이상대 대한불교청년회 회장
- 최혜영 금강메이리선악회 법사
- 강인성 대구경제정의실현시민연합회장
- 서석재 국회정책위원장
- 박상규 국민회의 연동회장
- 박철민 자민련 불자회장
- 함중현 금강메이리선악회 법사
- 김동훈 이웃을 돕는 사람들 이사장
- 윤용국 한국여성문제연구소 회장
- 김묘주 여성불교연합회장
- 장휘국 동국대 강사

(무순)

四年前과 오늘과 四年後

세해 아침에 먼저 모든 불자와 국민과 세계인류와 부처님법과 화합승가에 참여합니다. 전대미문의 교단 환란을 초래한 장본인 중의 한사람으로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 뿐 아니라 교단을 잘 되도록 해야 한다는 집념으로 나섰으나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어두운 마음가짐으로 감히 교단행정을 운위하며 겨레의 번영에 보탬이 되겠다는 등 일시적 희망으로 부족한 분상을 살피지 못한 채 교단을 어지럽히고 전 세계적으로 부끄러움을 드러낸 죄 이후 해야 할 수 없어서 침묵으로 일관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없던 불미스러운 일이 국내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널리 보도를 통하여 알려진 터라 말 몇 마디 한다고 하여 망신될 것이 더 없다고 생각하여 감히 필을 들었습니다. 먼저 제 죄상을 큰 것만 몇 가지 들겠습니다.

첫째, 맹목(盲目)인 탓에 종정체제를 원장체제로 바꾸어서 행정적 책임을 총무원에게만 중첩할 수 있게 한 사년전, 다면 중정체제의 신성도 지키고 종단도 안정될 것이라 생각하여 삼년 가까이 갖은 고생을 다하여 견디어 낸 끝에 마침내 '원장 체제'를 이룩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정 서용 스님께서 희생되시고 많은 대가가 치러졌으나 곧 이어 '10·27 법안'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둘째, 94년 의현 원장의 상선을 막아야겠다는 생각으로 개혁에 동참하여 그 뜻은 성취하였으나 적주비구위(장비구)를 두 번씩이나 원장으로 만드는 죄를 앞장서서 지었으며,

셋째, 비구위 원장의 상선을 지지해야 4년전의 개혁의 본지를 잃지 않는 것이며 누적된 그의 비리를 시정하여 종단을 수렴에서 건져야 한다는 개혁 주체로서의 의무감에서 원장 선거에 출마하여 마침내 그의 사퇴까지 이끄는 데 성공하였으나, 예비 승려의 도제가 그 임기가 지난 뒤까지 직무대행을 하여 총무원 청사가 경찰 특공대의 공격목표로 전락하게 한 큰 죄를 지을 줄이야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이상에 열거한 것과 같이 소납은 무지하였고 맹목이어서 '보래로 밥을 짓는' 어리석음을 범한 사실을 오늘에야 뒤우치게 되었습니다.

사년전 개혁을 외쳐 왔던 이들은 허용된 서의현 원장의 삼선도 막았는데, 오늘은 중헌상 금지된 삼선과 비구위의 자격 미달자가 총무 행정 수반의 자리에 더 있었다 하여도 의문을 느끼는 자보다는 작당하여 이권을 쥘 것겠다는 자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 뿐이 아닙니다.

4년전의 개혁 대중은 교단의 문제를 세속법정에 제기하면 중정체제를 한다고 중법상에 규정하여 실제로 실행하였는데 오늘날 중헌상 수호를 외치는 이들과 송비구 추종자들은 사년전과 똑같은 교단의 문제를 세속법정에 호소하여 하급심의 가져본 결정을 앞세워 중헌을 되찾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사년전 총무원 대중들과 승려대회 대중의 충출을 막으려 출동했던 기동대를 문제삼아 당시 최고 내부장관의 사퇴와 김영삼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오늘의 중헌상 수호를 외치는 대중과 송비구 추종세력들은 공권력을 끌어들이 전대미문의 특공대 작전으로 정령한 것을 부끄러움 없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청사를 뺀 것 사람들이나 뺀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은 이목도 생각하며 삼니다. 미국의 어느 신문보도에는 'S 스님의 삼선야유이 불러 일으킨 사태' 전반적으로 교육 수준이 낮은 승려들의 자질이 문제라는 내용이 실리기도 하였으며 국내의 모든 신문이나 방송이, '파멸적 전과자와 깡패' 운운한 표현이 예사같이 보도되는 현실을 적시합니다. 그리하여 어느 쪽에만 있는 양 착각이나 호도 하지 말고 송비구의 추종세력이나 중헌상 수호파에 유사한 파멸적범이 있다면 산문에서 조용히 수행하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조계사 방법과 가스통으로 총무원 청사를 폭파코저 했던 자들은 특공대가 청사를 공격하던 시퍼런 공권력으로 잡아야 편파적 공권력을 운운할 수가 없지 않았습니까? 고 감히 생각합니다.

사년전과 오늘에 이와같이 관이한 점도 있으나 불행스럽게도 같은 것이 있어서 격정스럽습니다. 그것은 한국내에 '유일한 제도'입니다.

사찰의 성공이 '공개되고 통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것만이 4년전이나 오늘날도 이거나 저거나 똑같이 지켜야 한다는 공통점입니다. 이와 똑같이 선호하는 '비공개 무통제'의 틀이 근본적으로 고쳐지지 않는 한은 갖바위, 보문사, 보리수 마을, 불교방송국 사태와 유사한 사태는 재발될 것이며 송비구와 같은 인물도 거듭 등장하리라는 것은 맹목의 짐작이지만 맞다는 확률이 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지우기 어려운 과과과 상체를 어렵고 어렵더라도 꼭 고쳐서 악순환을 정말 근절하여야 하였습니다.

제 얘기를 하였습니다.

5년후, 이 교단을 위하여 거름으로써 수용할 곳이 있다면 기꺼이 받쳐질 것을 생각하며 오늘의 허물을 온 거레와 불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29대 총무원장 선거에 있어서 합법적으로 등록을 필하고 공포된 후보를 특정인의 사퇴를 빌미삼아 전체후보를 무효화하고 재등록하여 12월 29일 실시코저하는 총무원장 선거는 원천적으로 무효임으로 이의 신청을 하는 제 입장을 해아려 주시기를 거듭 머릿속어 양해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수의 독선과 다수의 횡포도 억제하고 권의에 따라 마구 뜯어 고쳐지지 않는 훌륭한 '약속'을 잘 지키며 '공개와 통제'가 실행되는 사원운영으로 '이웃에게 필요한 교단'이 되게 통과의 마무리를 짓고 교단의 백년대계를 세우는데 일조코저 하오니 원로 큰 스님들과 대역제현과 모든 불자들에게서 도움을 주십시오.

끝으로 새해내내 건강하시고 바른 소망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사침

대한불교조계종 29대 총무원장 후보 설조 화남